



■ 프론테라노르테 대학 - 멕시코와 미국을 잇는 연구기관

토나티우 기엔 로페스(Tonatiuh Guillén López)

프론테라노르테 대학(Colegio de la Frontera Norte, 이하 COLEF)은 멕시코국립과학기술위원회(CONACYT: 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에 속한 연구교육기관으로 재정의 대부분은 상기 위원회에서 지원한다. 1982년에 설립된 COLEF는 티후아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따라 멕시칼리(Mexicali), 노갈레스(Nogales), 시우다드후아레스(Ciudad Juárez), 피에드라스네그라스(Piedras Negras), 몬테레이(Monterrey), 누에보라레도(Nuevo Laredo), 마타모로스(Matamoros) 등 일곱 군데에 지역 캠퍼스를, 그리고 수도 멕시코시티에 대표부를 두고 있다.

COLEF의 사명은 다양한 분과학문의 관점에서 국경사회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국경사회의 발전과 상호관계를 도모하고, 나아가 석박사 과정을 통해 고급 연구 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히 국경문제의 공공정책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프론테라노르테 대학 전경

이고, 국내외 시민단체 및 학술기관과 폭넓은 상호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COLEF는 멕시코 북부의 사회과학과 환경학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그 명성을 쌓아왔으며, 국경연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연구학문 분야는 인구학, 행정학, 도시학, 환경학, 문화연구, 사회학, 경제학 등 6개 전공학과로 구성된다. 현재 연구진은 110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관리부서와 행정지원 부서가 있다.

COLEF의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원 과정으로 지역연구 전공의 사

회과학 박사과정, 인구학 석사과정, 환경통합관리 석사과정, 문화연구 석사과정, 응용경제 석사과정, 지역개발 석사과정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학생은 국내외적으로(주로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선발된 학생들로 구성되며,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COLEF가 교육기관으로 출범하게 된 동기는 북부 국경지역이 멕시코의 국가발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인식 덕분이다. 특히 최근 60여 년 동안 이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와 경제적·사회적 활동 양면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역은 멕시코 국내 및 미국과 강력하면서도 일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가 되었다. 문화에서 경제교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폭넓고도 밀접한 양국관계가 이 지역만의 특성을 이루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다.

30년 전 처음으로 COLEF가 설립될 당시 멕시코 북부지역은 학계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소외된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다지 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이 지역 도시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민 증가 같은 사회현상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행정지원이나 사회과학적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COLEF가 문을 열게 되고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면서 북방의 변경으로 치부되는 이 지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오늘날엔 국내는 물론 멕시코와 미국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지역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처럼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앙집권화된 국가에서 지방은 국가적인 중요 시책에서 우선적인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연구 활동에 있어서도 주요 교육기관들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실상 지역연구는 중앙의 지식인들이 했다. 이들은 압도적인 자원을 연구와 대학교육에 쏟아 부었다.

사정은 차츰 변화되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북부 국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COLEF의 지적 기원이자 COLEF 설립의 핵심 주역인 멕시코 대학(El Colegio de México)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COLEF의 전신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였다. 그 후 이 주제와 북경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자,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A. Bustamante) 박사가 지휘한 상기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고 항구적인 성격의 구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같은 시도는 1982년에 멕시코북부국경연구센터(CEFNOEX: Centro de Estudios Fronterizos del Norte de México)를 설립하면서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고 이 센터가 몇 년 후인 1986년에 COLEF로 변신했다. 부스타만테 박사가 양 기관의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였다.

이와 같이 COLEF는 원래 지적인 목적에서 탄생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학문연구 및 사회과학 분야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서 탈중양화라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었다.

이후 본 대학의 연구 분야는 점점 확장되었다.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주연구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멕시코 북부 국경과 남부 지대 사이의 이주 흐름의 측정에 대규모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주의 상당 부분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의 여러 특징에 적합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도출된 정보는 이주민의 미국 입국과 본국으로의 귀국을 계량화하고 그 성격을 포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이 방법론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과테말라 이주민에게도 적용가능하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은 중미 출신의 이주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미국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차원의 두 종류의 통계자료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COLEF는 멕시코 연

방정부의 외무부(SRE), 내무부(SEGOB), 노동·사회예측부(STPS) 3개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이 자료들을 산출한다. 물론 이주문제에 관한 연구는 인권, 노동권, 경제, 인구변화, 보건, 문화적 반향 등 다른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본 대학의 특성화된 또 다른 연구 주제들은 지역산업(마킬라도라)에 대한 연구로, 지역산업의 경제적인 측면과 노동 측면은 물론, 이 산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현재 국경지역에 분포한 대다수 대도시의 경제활동은 마킬라도라 산업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의 고용과 성장이 지역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OLEF는 다채로운 분석을 통해 이를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경지역의 도시 하부구조와 양국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경제, 무역, 사회, 제도에서 양국 간 상호작용도 본 대학의 최우선적 연구과제이다. 최근에 대두되는 주된 이슈로는 이 지역에서의 양국 간 교류가 매우 활성화됨에 따른 양국관계의 제도와 실천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다. 매일 같이 국경지역에서만 백만 건 이상의 사람의 왕래는 물론, 차량과 화물차 등이 오가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한층 긴밀한 제도적·공공정책적 조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북부 국경지역의 도시문제, 공공서비스, 주택문제, 공간활용 연구는 COLEF가 수행하는 또 다른 연구 분야였다. 도시들의 급성장은—취약한 도시계획, 도시성장에 대한 취약한 조절 기능, 제한된 공공투자와 함께—공공서비스, 교통, 주택문제 등에서 심각한 부수적인 사회문제와 지속적인 결핍에 허덕이는 도시를 낳았다. 이러한 성장일로의 환경 하에서 야기된 많은 문제들 앞에 본 대학은 삶의 질과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진단과 권고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문제 역시 우리 대학의 중요 연구의제이다. 물, 대기, 동식물처럼 국경지역에서는 자연자원이 공유되기 때문에, 이들 자원에 대한 진단은 물론, 그 사용과 부족사태에 대한 예방책 등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의제에 지역의 관점이 깃들여있는 새로운 주제들이 첨가되었는데,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로의 이행 관련 주제들이 그것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다양성, 선거, 민주주의 강화, 행정기능의 지방분산, 연방주의의 발전에 대한 연구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성, 다양한 사회문제 등 최근에 국경사회에서 일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역시 연구의제의 일부분이다.

간단하게나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OLEF가 수행하는 연구, 새로운 전문인 양성, 연계 업무 등은—국내외적 파급력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배제하지 않은 채—멕시코 북부지역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경사회가 발전하고 그 중요성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각되면서, 본 대학은 지난 30년간의 궤적과 함께 이제 더 크고 복잡다단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번역: 신찬용]

토나티우 기엔 로페스 - 프론테라노르테 대학 학장. 이 글을 번역한 신찬용은 평택대학교 평택세계화연구원이다.
